협력업계 소식

계간 방재기술 귀중

(주)세 진

소방기구 생산자동화 15억 들여 CNC 선반 등 도입

1966년 설립이래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위하여"라는 창업이념 아래 23년간 기술개발과 전 사원의 인화를 도모로한 국내 유일의 소방기구 및 보올밸브 제조 전문업체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온 새서울산업주식회사가 88년 11월에는 기업의 면모를 새롭게하고 힘찬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세진"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공개를 단행, 우리나라 증권시장 사상 뜻깊은 500번째 상장회사가 되어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국내 조립금속업 중 소방산업을 주도하면서 착실히 성장해온 (주)세진은 설비투자와 공정개선 부문에서 소방산업의 과학화, 국제화에 대비키 위하여 생산관리에 혁신을 기하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 및 합리화와 제품설계 전산화에 CAD/CAM System을 활용함과 더불어 15억원의 설비 투자로 CNC선반, CNC밀링, 만능공구 연삭기, CAM설비도입으로 신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은 물론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제품개발에 있어서는 난방 등의 특수밸브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소방기구 및 밸브종합제조 메이커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에 자체 사옥을 신축, 업계에서는 최초로 사옥내 상설 전시장 및 최신 시험실도 갖추어 소비자가 직접 확인, 실험하여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인력 확보와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해외 선진기술 연수와 국내 위탁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장기근속자의 해외 연수 등으로 사기 앙양을 기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삼성전관(주)

영상정보기술의 주역

삼성전관은 경남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번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완전을 추구하는 책임정신과, 삼성전관 전임직원의 긍지로서는 완벽 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초 한국전자산업 부흥에 앞장서 국내 최초로 흑백브라운관을 생산하여 한국경제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회사창립 18년의 짧은 역사속에서도 삼성전관은 세계각국에 흑백 및 칼라브라운관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브라운관 제조업체로 부상하였고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로서 각광 받게된 L C D를 자체 개발하여 양산공급 하고 있습니다.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의 고급화,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해 오고 있는 6″초 소형 브라운관, 풀페이지디스플레이 CRT, 칼라고체 촬영소자, 초전도체 개발 등 삼성전관의 첨단기술력에 만족치 않고 세계적인 영상정보기술의 선두자가 될 것입니다. 주력사업으로서는 칼라브라운관 사업으로 TV브라운관에서 산업용 브라운관에 이르기까지 고화질 영상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흑백브라운관사업, 평판 표시 소자 사업, 모니터터미널사업, 컴퓨터사업, 연구개발 활동과 이상과 꿈을 실현하며 자기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력으로서는 종합방재센타와 경화학 소방차를 비롯하여 부서별 자체소방조직(80대)과 소방차 소방대원(60명) 훈련과 부서별 자체 소방훈련 등 막강한 소방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초기 소화능력으로 ABC 분말소화기 894대와 CO_2 소화기 772대를 비롯하여 옥내 소화전 242개소, 옥외 소화전 90개소와 스프링클러